

조사료 수입물량 연차적으로 감축 조사료급여 비율 2013년까지 60%대로 향상

>>정리<<이미자

사 단법인 한국단미사료협회가 주최하고 (주)태영인더스트리와 미곡물협회가 협찬한 “섬유질사료 산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이 지난 8월 25일 한국단미사료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섬유질 사료산업 관련 종사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이번 워크숍에는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재용 과장과 이범민 사무관을 비롯하여, 건국대학교 김준선 교수, (주)서해의 박종식 대표이사 등이 연사로 나와 섬유질사료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에 관해 강의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달성과 농장 경영의 안정화 꾀해야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재용 과장이 문을 연 첫 강의는 "축산정책의 방향"으로 축산업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다. 이재용 과장은 강연에서 "그동안 축산업은 UR 타결과 WTO체제 출범 이후의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규모화, 시설현대화, 품질고급화에 중점 지원해왔고, 그 결과 전업화 촉진, 고품질·안전 축산물 생산 확대와 방역체계 조직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DDA협상 및 FTA확대 등으로 시장개방은 더욱 가속화되고, 축산물 안전성과 환경, 그리고 가축방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할 것이어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달성과 농장 경영의 안정화를 꾀해야한다"고 전했다.

조사료 수입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

이어 "2005년도 조사료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한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범민 사무관은 지난해 조사료 공급량은 4,084천 톤이었고, 이 가운데 17%인 69만1천 톤이 수입되었다며, '04년도 조사료 수급상황으로 설명의 문을 열었다. 이어 이범민 사무관은 조사료 생산확대의 필요성으로 △소의 경제수명 연장 및 번식을 향상 △휴경지 사료작물 재배로 경관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 △가축분뇨 자원화와 연계한 사료작물 재배로 친환경축산 도모를 들고, 이를 가로 막고 있는 요인으로는 △축산농가의 지 역 빈약 △농경지 확보 어려움 △경종농가의 저조한 조사료 생산사업 참여 △농경지 활용 저조 △전남·북에만 집중된 조사료 생산 △국내 부존사료자원 이용저조를 꼽았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타개할 조사료 확대 방안으로는 ▶조사료 급여비율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60%까지 향상시키고, ▶조사료 수입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내 옥수수 에탄올 생산 증가로 옥수수주정박(DDGS) 공급 늘 듯

'DDGS(주정박)의 영양적 가치 및 젖소에서 의 이용권장안'을 발표한 김준선 교수는 미국물협 회 한국사무소 Kenneth Kalschauer의 보고를 토대로 하여, 현재 증가하고 있는 미국 내의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으로 인한 DDGS(Dried Distillers Grains with Solubles : 편의상 '주정박'으로 번역)의 증가가 가축사료로써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경향을 불러 올 것임을 예고했다. 김준선 교수는 DDGS 가운데 golden color는 대두박 혹은 옥수수를 대체하는 젖소의 단백질 공



▲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재웅 과장



▲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범민 사무관



▲ (주)서해 박종식 대표이사

급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단 옥수수 DDGS의 이용에 주의해야 할 것은 배합비상 적절한 DDGS 이용을 위한 성분파악이 중요하며, 전체건물섭취의 20%까지가 적절하며, 유지방의 저하를 위해서는 적절히 유효한 조사료의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옥수수주정박, 사료비절감과 우유내 질소태 감소 효과있지만 유황함량 높아 주의하여 사용해야

이러한 '옥수수 주정박의 영양적 가치'에 대해서는 (주)서해의 박종식 대표이사가 바톤을 이어 받아 설명을 했다. 박종식 대표이사는 옥수수 주정박을 직접 사용해 본 사례를 발표하며, 옥수수 DDGS를 젖소 사료로 이용한 결과, 비분해 단백질이 높아 우유중 질소태가 낮아지고, 사료비가 절감되었으며, 체중 증실지수가 개선되고,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옥수수 DDGS를 과다급여할 경우에는 라이신 함량이 부족할 수 있고, 인의 함량이 높아 광물질의 균형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으며, 두과 건조 비음일 때 단백질과 인의 첨가된 단백질 공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옥수수 DDGS의 이용에서는 유황의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리고 옥수수 DDGS 이용의 향후 과제로는 사료비 가격, 양돈 대체 품목 개발 노력, △정정연료 대량 생산 전환 추세로 인한 가격 변동, △농산물 가격 하락, △화학 물질 기술확충 필요 △원활한 공급과 적정 가격의 설정, △수출입 관세 등 다양한 투자 등을 꼽으며 발표를 끝냈다.